

전통과 제도의 창조: 19세기 후기 중국의 양무운동

꾸어 웨이똥(郭 衛東, 북경대학)

【발표요지】

아편전쟁의 발발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세기 중엽, 중화전통의 고전적인 문명이 공전의 도전을 받았다. 그때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내부에서의 조정이었다. 가령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로 동양문명으로부터의 영향이었고, 서양문명의 영향은 대부분 간접적이고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중국문명은 서양문명과 충돌하고, 그 가운데 전통과 제도의 창조가 이 시대의 2대 주제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중화전통문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문명체계, 특히 서양의 문명체계로부터 많은 것을 수용하고 또 흡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명의 일부분이 면면히 계승되어 중화문명은 계속해서 민족적 색채를 잃지 않았다. 19세기 후기의 중국 양무운동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핵심이었다.

우선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편전쟁의 참패로 인해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근대기계공업이 나타났고, 군사병기문화의 발흥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주민의 소비구조와 습관이 변하고 사회생활, 특히 도시생활이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근대 시정(市政) 건설이 시작되었고 전업 소방대나 수도회사, 지하수도, 가로등, 전화(당시 ‘德律風 delufeng’이라고 영어로 음역되었다.)가 출현했다. 다음으로 문화면에서 보면, 서양 학문이 충격을 주어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양무관(觀)이 나타났고, 박학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이 한순간에 역전했다. 근대 문교사업이 시작되었고, 문화를 전파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으며 학문의 계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문화 면에서는 전통적인 인습이 많았기 때문에 직면해야 했던 도전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면에서 보면, 입헌정치 도입의 비동시성, 근대적 재정과 사법, 관료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공화제가 전통적인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었던 것이다.

【약력】

꾸어 웨이똥(郭 衛東), 중국 북경대학 역사학부 교수

생년월일: 1955년 9월 15일 (기혼)

연락방법: 북경대학 역사학부 〒100871

E-mail : gwd@pku.edu.cn

핸드폰번호 : 13522062122

1986년 북경대학대학원 중국근현대사 전공 수료후 북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중국중외관계사연구회 이사, 북경시 역사학회 이사. 연구분야는 중외관계사, 중국근현대사, 주요 저서로는 『불평등조약과 근대중국』, 『중토기독교(中土基督)』, 『전환-중기중영관계와 남경조약을 중심으로-』, 『중국근대특수교육사연구』, 『중외구약장 보편(淸朝)』 등.